균특회계 관리 허술에 사라진 1000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올해부터 집행 부진으로 발생한 잉여금 세입에 포함
타 지역 증가세 속 제주계정만 3218억→2197억 '뚝'
도의회 예결위, 1차 회의서 제주도에 대책 마련 요구

올해부터 전년도 이월금이 제주계정 세입예산에 포함되면서 제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예결산전문위원실)은 제주도의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미흡 등으로 말미암아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금고에서 1169억원이 증발됐다고 14일 밝혔다. 균특회계는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 분권 등을 목표로 처음 설치됐으며, 제주계정과 세종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구성돼 있다.

예결산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균특회계 정부 전체 예산은 2007년 6조5860억원에서 2019년 10조7485억원으로 63% 정도 증가했지만 제주계정으로 배분된 예산은 2007년 3554억원(5.4%)에서 2019년 3395억원(3.1%)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더구나 2018년 국회의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관례상 세입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잉여금 등을 2019년 제주계정 세입예산에 직접 편성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면서 제주계정에 누적된 잉여금을 고려하면 실제 제주계정 세입예산은 11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제주계정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만 구성됐지만 2019년부터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항을 만들어 2017년 세계잉여금(730억원)과 초과세입 예상분(5년 평균, 342억), 불용액(5년 평균, 95억원) 등을 포함시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잉여금 등을 포함해 예산을 편성하면 제주계정 편성액은 2018년(3218억원)보다 1021억원 감소한 2197억원이다.

예결산전문위원실은 "제주계정 예산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허술한 균특회계 집행관리로 말미암아 균특회계 1169억원이 줄어들고, 향후 예산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구조로 변경됐다"며 "이번 예산에 미반영된 재원을 반드시 다음 예산에 추가반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4일 제37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제1차 회의에서 "다른 지역은 모두 예산 규모가 늘면서 균특회계도 증가했지만 제주만 감소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도 "항상 제주계정에 있었지만 그동안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기재부가 예산총액에 넣어버려 결과적으로 1169억원을 주지 않은 것"이라며 "예산부서에서는 기재부에 가서 확인하고 예산을 찾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성준기자

"확인 없이 '제주산' 단정… 허위사실 유포 사과를"

평택항 반송 폐기물 관련
제주시, 경기도에 사과 요구

지난 14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윤 국장은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압축폐기물이 '제주산'이라고 언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경기도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제주시 제공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압축쓰레기의 출처가 제주산이 아님이 확인되면서 제주시가 경기도청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지난 14일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평택항으로 돌아온 4666t의 폐기물의 배출처가 제주시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했다는 경기도청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반송 처리된 폐기물중 제주시 압축폐기물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며 "평택시에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환경부 등이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확인한 결과 제주산 폐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음날 개인 SNS를 통해 "경기도는 출처확인에 집중하기보다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처리를 택하게 됐다"고 변명했다.

윤 국장은 "경기도가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당 쓰레기 중 상당 부분이 제주산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재명 도지사의 개인 SNS의 글도 '정중한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13일 공문을 통해 경기도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항에 대한 정정보도와 함께 제주도와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를 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지역화폐로 상권 살리자"… 道 '난색'

고은실 의원 "지자체 중심 지역화폐 도입을" 요구에
제주도측 부정적 입장 피력
"제주사랑상품권 우선돼야"

지난 1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37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지역화폐)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자금의 선순환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는 현재 운영 중인 제주사랑상품권이 우선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제37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지역화폐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2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영업성장·혁신종합대책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며 "제주사랑상품권은 발행처가 상인회이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중심이다. 지역상품권은 판매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제주사랑상품권은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지역화폐는 정부가 발행비용의 4%를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상점가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6%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3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즐겁게 소비하고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행정부지사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연구해보겠다"면서도 "제주도 입장에선 제주사랑상품권 활성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표성준기자

도,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2019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주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국제교류주간은 제주의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관계관들을 제주로 초청해 지역별·분야별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교류주간에는 총 5개국 15개 도시에서 34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제주도는 국제교류주간에 자매·우호도시간 정책사례 발표와 분야별 교류 활성화 실무협의, 도내 유관기관 국제교류 관계관 간담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사례 발표에서는 각 도시별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실무협의에서는 자매·우호도시별 희망교류분야 및 희망교류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자연·문화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해 제주의 청정자연과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소개한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도내 유관기관 국제교류 관계관들이 한자리에 모, 올해 국제교류주간의 성과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알림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5차 참가자 모집

한라일보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회** 주말을 이용한 힐링 프로그램인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를 실시합니다.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으로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자연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에코투어 프로그램은 제주자연의 속살을 직접 보고 걸으면서 일상의 찌든 삶을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ecotour.ihall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5차 에코투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2019년 6월 29일 8시 ~ 16시
▶대 상: 국내외 관광객 및 제주도민 (20세 이상 성인 참여 가능)
▶모집인원: 40명 (선착순 마감)
▶코 스: **남조로 ~ 바농오름 ~ 목장길 ~ 큰지그리오름 ~ 태역밭길 ~ 교래곶자왈 ~ 태역밭길 ~ 민오름 ~ 숲길 ~ 명도암 삼거리**
▶집 결 지: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08시 대형버스로 이동
▶준 비 물: 배낭, 등산화, 긴팔, 긴바지, 모자, 장갑
▶신청기간: 2019년 6월 17일 ~ 6월 25일
▶참가접수: 한라일보 인터넷 에코투어 홈페이지(http://ecotour.ihalla.com)
▶참 가 비: 1만2천원(여행자보험·중식비 등 포함)
▶입금계좌: 농협 301-0104-3643-81 (예금주 : 한라일보사)
▶문 의: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사무국 ☎ 064)750-2291, 2151

한라일보

자연 문화 사람 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2019 전국 생활 체육 승마대회

일시: 2019.06.22(토)~23(일) 2일간
장소: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행사 내용
체험행사시간 10:00 ~ 15:00(중식 시간제외)
- 개회식: 22일(토) 10:00
- 무료 승마체험
- OX 퀴즈 이벤트 (100만원 상당의 제주문화상품권)
- 페이스 페인팅
- 뱃지 만들기
- 무료 중식 제공
- 슬러시, 팝콘 제공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행사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최/주관: JJCF 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Jeju Let's Run PARK

2019년 상반기 한국은행 제주본부 지역경제세미나

제주지역 新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일 시
2019년 6월 18일(화) 16:00~18:00

장 소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8층 탐라홀
(주소 : 제주시 탑동로 66)

■ 발표자, 사회자 및 토론자

발표자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공유경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이승덕 교수)
	제주지역 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생명공학부 김창숙 교수)
사회자	강철웅 교수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토론자	방호진 교수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이중화 박사 (제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부)
	장원국 센터장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현창구 교수 (제주대학교 화학·코스메틱스학과)

■ 주최: 한국은행 제주본부
■ 후원: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 제주금융협의회

※ 문의처 :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064-720-2503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친환경 전통건축 [한옥에서의 건강한 삶],
전통건축 선자연이 실현합니다.

시 공
- 전통건축(살림집, 사찰)
- 전원주택 시공 및 리모델링
- 전통 구들 시공
-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수리기술자] 직접 시공
- 전통건축 대목이 직접 시공참여 기술지도
- 나무, 흙, 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건축
- 제주 전통건축 양식 및 기후 반영한 설계 시공
- 품질 우선 시공, 합리적인 건축비

상담 : 010-5308-5796, 064-764-0488

전통한옥문화재사랑 선자연